

# 매스미디어와 평화교육: 미국 NPR과 한국의 EBS를 중심으로

정연정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요약 |

본 논문은 평화교육에 있어서 매스미디어가 수행하는 긍정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디오와 케이블 방송에서의 대국민 평화교육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는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의 해결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문지기 과정(gate-keeping)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의제들을 생성해냄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집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시민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위해 일정정도의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구성하는 방송 콘텐츠의 내용이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 이슈에 관련해서도 언론은 끊임없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전쟁과 평화의 개념이 국민들의 인식기반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ational Public Radio)의 경우는 최근 미국내의 테러사건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국 참전과 전후처리과정에 대한 고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폐쇄되어 있는 전쟁 및 평화관련 정보의 소스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이 의도적으로 간과한 전쟁과 평화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국민의 전쟁 및 평화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방송(EBS)의 경우는 청소년들에 대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단순한 정보전달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에 대한 청소년간의 의견소통의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언론의 전쟁과 평화교육은 좀더 객관적이면서 현장감있는 체험 교육의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더욱더 진전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이 조작되지 않는 객관적인 보도관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monitoring)과 견제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I. 서론

언론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사회과학의 매우 중요부분으로 자리잡아왔다. 현대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정치사회의 중요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스미디어가 하루하루 다루는 사회문제들은 곧 정책문제가 되고, 이는 다시 실질적인 정책집행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정책어젠다(policy agenda)를 생성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매스미디어의 이른바 의제 설정기능(agenda setting)<sup>1)</sup>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수없이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단적인 문제로 전화

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 문제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인 내용들로 공식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관여(involve)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스미디어는 이러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정부의 관여와 개입을 통하여 이른바 해결되도록(problem solving)하는 중간과정을 매개하는 매개자(medi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문지키기 과정(gate-keeping process)라고 하며, 이러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언론의 중요한 권한이며 역할이기도 하다.

물론 이상적으로 이러한 문지키기 과정이 언론의 권력과 권한만을 증대시키는 수단적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과 같은 현대 정치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이 사적인 이해에 경도되어 객관적·민주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권력에 종사하는 왜곡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sup> 따라서 이에 대한 공공의 통제(public control)를 전제로 하는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매스미디어가 현대 정치사회의 중요한 역할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 사적인 이해에 경도되거나 공공성을 추구하거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모든 매스미디어가 하루하

1)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에 대해서는 Iyengar Shanto and Kinder Donald,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참조.

2) Walter Lippman, *Public Opinion* (New York: Free Press, 1922).

루 생산하는 정보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집단에게만 중요한 문제를 공공성으로 위장하거나 하는 방식의 조작화가 언론의 전부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조작(manipulation)은 대안적 언론의 존재로 인해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는 간접적인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에티오피아인의 기근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방송사인 ABC(American Broadcasting Company)사의 행위와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숨겨진 어젠다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끌어낸 영국 BBC(British Broadcasting Company)의 긴장관계에서도 언론 조작의 제한성이 드러난다. 당시 ABC 기자였던 빌 블랙모어(Bill Blackmore)는 에티오피아의 기근이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취재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ABC 방송사측은 에티오피아 기근에 대한 실제보도 대신 기존의 자료 화면을 편집하고, 로마에 상주하는 특파원으로부터 단순 기사를 공급받아 중요한 뉴스거리로 취급하지 않았다. 에티오피아인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미국 내 흑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ABC사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BBC사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이후에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뒤늦게 이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sup>3)</sup>

매스미디어의 조작에 대한 사회적 견제 가능성은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1991년 미국의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여교수인 아니타 힐(Anita Hill)사건 역시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의 중요한 측면

3) 유세경, 『매스미디어와 현대정치』 (서울: 나남출판사, 1996).

을 담고 있다. 흑인 여교수였던 힐의 경우 미국의 전대미문의 성희롱 사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성희롱 사건이 공공의 영역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 공영방송(PBS)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였던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공영방송 PBS는 본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방송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유일한 방송이었는데, 주요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나 방송을 하기보다 공중에게 스포츠 프로그램 방송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PBS의 청문회 방송으로 본 사건은 순식간에 3천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시청률이 26.5%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안적 매스미디어는 우리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을 사회적, 정책적 문제로 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언론의 게이트 키퍼링과정에 담겨지지 못한 숨겨진 어젠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언론의 사적인 이해로 인해 편파적으로 보도되거나 숨겨지는 권력 장치로서의 역할로도 기능하지만<sup>4)</sup>, 모든 언론이 동일한 조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위의 2가지 사례에서 인식할 수 있다.

4) 미디어가 의제설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조작행위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인식됨으로써 기업의 이해와 공중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기업가적인 원인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팩저널리즘(packaging journalism)과 관련된다. 팩저널리즘이란 미디어의 뉴스와 보도의 주요한 뉴스원이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엘리트 집단 및 기구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이 오히려 더욱더 많이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팩저널리즘이란 미디어가 단지 자본의 이해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왜곡 및 조작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M. Fishman,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0) 참조.

매스미디어의 이러한 의제설정기능 뿐만 아니라 대중 교육기능(public education)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과 같은 미디어들은 사회관련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을 위한 독자들의 숙의기능(deliberative function)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미디어는 독자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는 중요한 소스(source)로서 역할을 하며 특히 방송의 토론 및 다큐멘터리, 신문의 칼럼 및 사설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주장과 논쟁에 대한 숙고의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미디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기능을 초월하여 대중을 교육하고 계도하는 주체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디어의 교육 및 계도적 기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이며, 인권, 평화, 환경등과 같은 생활상의 다양한 시민이슈를 사회에 전달하고 투영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체험하나 이러한 문제가 객관화되는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환경적 제한을 극복하고 개인이 별다른 비용(transaction cost)을 지불하지 않고, 공중들이 타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이러한 교육 및 계도적 기능은 개인들의 의견의 조정이나 형성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의 교육과 미디어가 연계되는 것도 바로 언론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잠재적 시민들의 미래 교육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본문은 이러한 언론의 대표적 2가지 기능(의제설정과 교육 및 계도

기능)을 전제로 하는데, 특히 본문은 언론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의 함의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 구성된다. 국제 평화 및 인권등과 같은 중요한 어젠다들에 대한 미디어의 교육적 기능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의 역할과 기능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이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언론의 주요한 보도와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개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언론의 주요한 교육적 효과를 가늠하는 것과 직결된다. 특히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의 평화 및 전쟁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과 특성, 그리고 한국의 교육방송(EBS)의 청소년에 대한 평화 및 교육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의 평화교육적 효과를 가늠하고자 한다.

이러한 2개 방송사의 평화 및 전쟁 교육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언론의 국내외적인 역할의 발전방향에 대한 가능한 내용들을 도출하려고 하며,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본문의 구성은 서론을 제외한 다음 장에서는 언론의 평화의 상관관계, 그리고 언론의 평화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일반론적인 논의가 전개된다. 제 3장에서는 미국 매스미디어의 시민 평화교육의 일반적인 내용과 공영방송사의 평화방송의 내용과 문제점이 검토되고, 제4장에서는 한국 언론의 평화방송의 특성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결론부분에서 필자는 향후 언론이 수행하는 평화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매스미디어와 평화교육 개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매스미디어의 평화관련 보도나 지침들은 언론사의 색채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언론사는 자신들의 환경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소재선택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회적인 투영을 통해 재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언론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국가적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으며, 언론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지배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의 평화교육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관련 언론사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센터 등을 통한 직접 교육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의 보도를 통한 간접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전자의 경우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문화 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강 및 이벤트성 체험교육이 포함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뉴스와 같은 보도형식의 프로그램은 물론 특집 다큐멘터리 등의 내용을 통한 공중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sup> 또한 정규방송의 보도가 아닌 동영상물 제작을 통한 홈페이지 교육 역시 최근 언론사들이 평화 및 전쟁관련 교육의 콘텐츠로 공급되고 있다. 최근 한국 교육방송의

5) 한만길 외, “각급 학교와 사회 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물론 본 문헌은 언론과 평화교육의 이론적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및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우리 언론이 수행해온 일반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본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2가지 기능이 평화교육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6) 오기성 외, “통일교육 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3).



경우 이라크 지역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청소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데<sup>7)</sup> 이를 통한 평화교육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평화교육이 일방적인 교육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21세기의 평화와 전쟁의 교육양식은 문화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평화교육의 핵심 컨텐츠가 “무기로부터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언론의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식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유엔총회는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해(International Year of the Culture of Peace)’로 선포하였는데 1989년 유네스코는 평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995년부터 평화문화를 유네스코의 공식사업으로 채택한바 있다.<sup>8)</sup> 즉 이는 국제사회가 평화문제를 다룸에 있어 삶의 문화로, 다원화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평화문제 해결의 초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개념정의의 변화는 언론사의 평화교육 및 홍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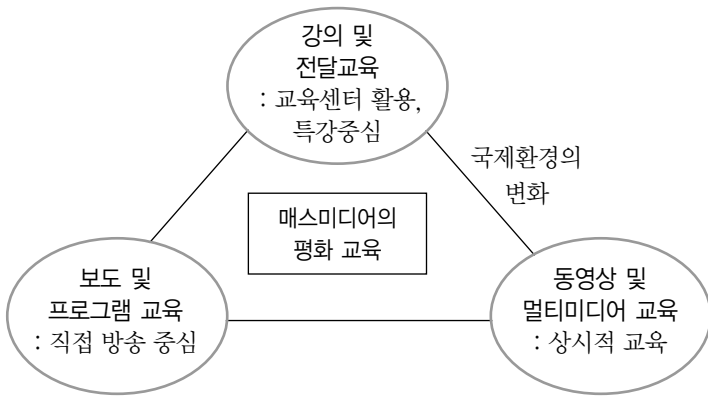
최근 우리 언론사들이 수행하는 국제적 분쟁지역에서의 인종문화 및 관습에 대한 보도내용들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문화적 양식으로 재

7) 이는 EBS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물로서 “이슬람 문화기행”이 그것이다. 본 동영상물은 이라크 지역의 전쟁과 갈등의 문제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문화교육적인 컨텐츠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다. 단순한 주입식의 교육내용보다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개별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간접적인 양식의 교육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것의 교육적 파급효과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hrights.or.kr>(검색일: 2005.11.1) 참조.

8) 홍민식,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평화』, 창간호 (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해석하는 시대적인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론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일선에서 흡수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스미디어의 새로운 평화교육의 양식들은 단지 언론이 수동적인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전환을 주도하는 운동적 기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른바 21세기 평화 거버넌스(governance)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언론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국내적으로는 대국민 교육의 기제(mechanism)를 형성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림 1〉 매스미디어의 평화교육 주요 방식과 내용



결과적으로 매스미디어는 크게 3가지 차원의 평화 및 전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언론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별도의 교육센터를 통한 직접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교육, 그리고 멀티미디어 제작물을 통한 상시교육이 바로 그것이며, 이를 통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어젠다 설정과 대국민 숙의의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3가지 차원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효과를 표출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변화하는 세계 평화환경의 담론(discourse)을 국내적으로 실현하는데 이러한 방식들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 III. 미국 매스미디어의 시민 평화교육

#### 1. 미국의 매스미디어의 평화적 기능

미국의 기존 주요 방송사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그리고 최근에는 대안미디어를 통한 공중방송(public media)의 평화보도가 미국사회 내에서 출현하고 있다. 최근 미국 FBI의 서버 압수수색을 당해서 화재를 모으기도 했던 독립미디어센터(indymedia)는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전 세계 대안언론의 네트워크로서 기능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시점에 반전시위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였고 이를 통해 대중 평화 교육 및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은 미국사회내의 대안 언론들의 전쟁과 평화문제에 대한 개입은 기존 언론들이 수행해온 보도의 왜곡과 편파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공중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

9) 조동원,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 『세계화와 민중』, 40호 (2004).

함으로써 미디어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매스미디어의 평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들은 최근 이라크 전쟁에 미국의 참전과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평화적 행위양식들에 대한 고발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만큼 미국사회의 평화인식에 주요 언론사로부터 대안언론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언론보도가 사회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교육적 효과는 레이건 행정부에 이루어진 이른바 레이저니즘(Reaganism)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부활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미국의 외교 및 전쟁관련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자기강화(social self-consolidation)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 당시 미국의 TV를 포함한 미디어였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의 미국은 라디오를 TV가 대체하고, 이를 통한 전쟁 및 평화 관련 정보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케이블 TV의 위력역시 확장되어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경우 이미 TV 시청률이 28%에 이르게 되고 케이블 TV(Cable TV)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시청률 역시 상대적으로 증대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미국 방송중 TV가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라디오의 대중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표 1〉 1987년 미국 가정 TV 시청 현황(단위: %)

TV 종류	시청비율
TV만 보유	28
TV+ VCR 보유	23
TV+ Basic Cable	12
TV+VCR+ Basic Cable	10
TV+Basic Cable +Pay Cable	9
TV+VCR+Basic Cable+ Pay Cable	18

출처: Cable and pay cable (1987년 11월) from Channels, 1988년 1월, VCR, 1987년 5월, Nielson press release; A.C.Nielson Company.

\*\* Lawrence W. Lichty, "Television in America: Success Story," *American Media*, Chap.13, p. 164 에서 재인용

미국의 TV를 통한 외교 및 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효과는 라디오와 같은 구 매체들의 교육적 기능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TV매체의 인기는 오락과 스포츠 중심의 비디오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들에 대중들이 더욱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디오와 같은 오디오 기능을 활용한 대중들의 평화교육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중들은 과도한 오락이나 스포츠에 대한 요구보다는 주로 국제관계 관련 정보와 시사성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제기하게 되었다. 1987년 당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0%이상이 Time, Newsweek, U.S. News & World Report를 읽고 있었으며, PBS나 CBS사의 국제관련 및 시사에 대한 시청률도 평균 10%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내

용은 미국 국민들이 TV와 같은 비디오 장치를 통한 오락성 내용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국가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심거리들에 대한 정보원을 갖고자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와 같이 미국 국민의 국제뉴스 및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미국 공영 라디오의 의미를 한층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공영라디오(이하:NPR)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사회적 정보들을 신속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배 TV 언론사들이 제한적으로 수행해온 평화교육의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NPR의 경우 미국과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전, 그리고 이에 대한 반전운동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미국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왔으며, 특히 주요 언론이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정치적 성격의 평화문제에 대한 보도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反)평화적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국내적으로는 주요 언론들의 오락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해 반평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던 시점에 NPR의 정보를 통한 대중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즉 이는 공식적인 게이트 키퍼과정에서 배제된 전쟁과 평화 관련 의제들이 NPR를 통해 뉴스 화됨으로써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쟁점들을 생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뉴스전달로 시작된 NPR의 대국민 평화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NPR의 평화방송

10) Ace Nielson (1986).

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현재 NPR이 전개하고 있는 평화관련 방송 및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NPR의 웹 사이트 소개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필자는 본장에서 NPR의 평화교육의 현재 특성과 문제점을 가늠함으로써 미국 매스미디어의 평화교육의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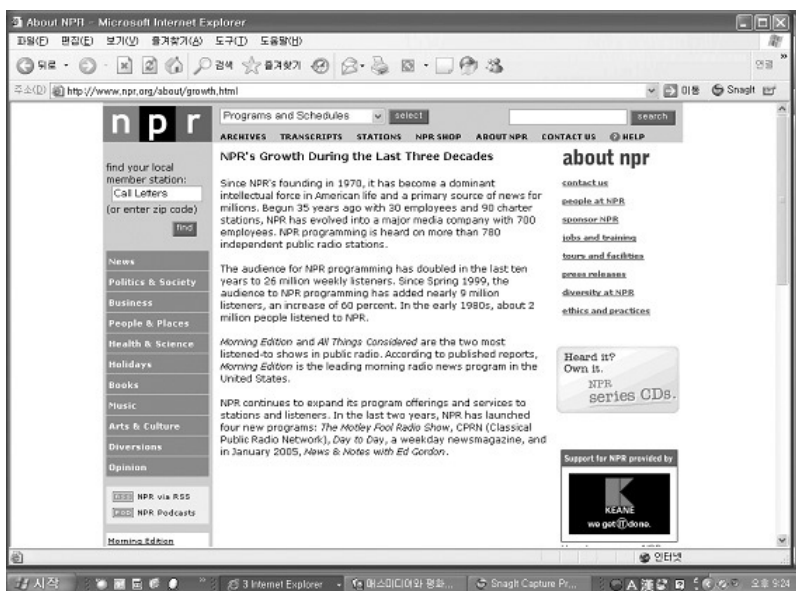
## 2. NPR의 평화보도와 교육특성과 문제점

NPR은 1970년에 미국 공중파 라디오의 시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1970년 개국을 시작 이래 현재까지 수백만의 미국시민들이 가장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780개 이상의 독립공영 라디오 채널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시사 프로그램 및 국제 뉴스에 강점을 갖고 있는 NPR은 라디오 매체 한가지로 미국의 다수의 시청자를 확보함으로써 라디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NPR은 주로 국제 분쟁지역에서의 미국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자칫 왜곡되기 쉬운 국제이슈들을 주로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NPR은 미국 사회의 평화운동 집단들에 의해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초창기의 NPR의 의제설정 기능의 순수성이 왜곡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한 NPR의 보도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순수한 NPR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이다.<sup>11)</sup> 하지만 이러한 NPR의 순수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NPR은 평화관련 뉴스 보도들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으며, 특

히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 및 전쟁관련 입장들에 대한 반대여론을 집적하는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보도적인 측면에서 NPR은 아침 시간에 ‘Morning Edi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해외 관련 전쟁 및 분쟁 소식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및 이스라엘에서의 대응양식에 대한 분명한 반대 논평들을 계속해서 생성해냄으로써 대중교육의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NPR의 ‘Morning Edition’은 최근 이라크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뉴스정보와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분쟁 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미국 NPR의 Morning Edition의 보도내용



11) 이에 대해서는 Ali Abunimah, “NPR is Lying About Israel Again,” <http://www.abunimah.org> (검색일: 2005.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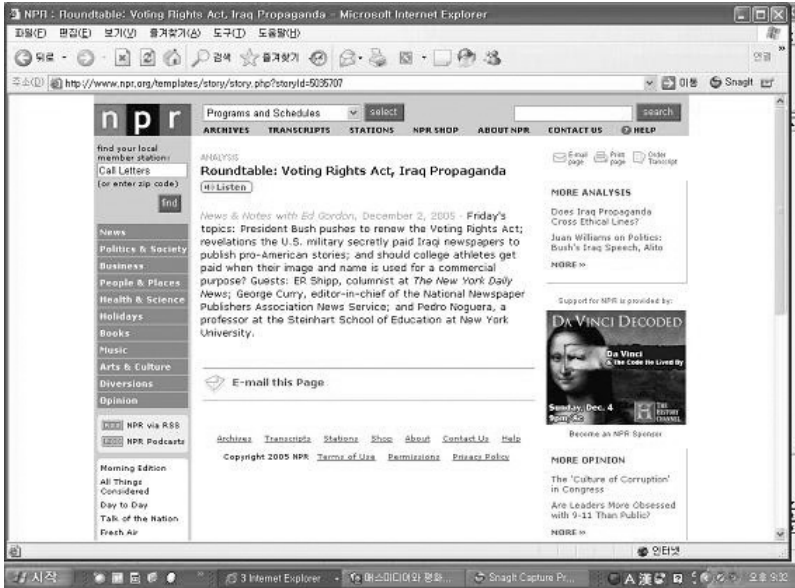


NPR의 *Morning Edition*이 갖는 교육적 효과는 단순한 정보제공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뉴스보도과정에서 전달되어지는 각계 전문가들의 논평내용들은 평화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함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미 필자가 앞서 논의한 것처럼 보도를 통한 간접적인 교육양식이 NPR의 주요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논평과 같은 기제를 활용함으로써 공중들에게 속의의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화대담과 같은 양식을 통해 대중들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NPR의 여론집적 및 속의기능을 통한 교육방식은 전쟁과 분쟁에 대한 'Opinion'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전쟁문제에 대한 시청차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의견들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라디오는 시청자들을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시키기 쉬운 것이나 NPR의 전쟁 및 평화관련 보도는 특히 대중의 여론을 라디오 상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NPR이 최근 평화와 관련된 교육적 효과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은 CD형태의 평화관련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이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PR의 경우는 특히 교육기관(대학 및 기타 교육과정)의 관련 프로그램 CD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라디오 시청을 많이 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확대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NPR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속의적 프로그램



결과적으로 미국의 NPR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란과 이라크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주요 언론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뉴스보도들을 구성해왔고, 이를 통해 대중에 대한 정보전달을 함으로써 대중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간접적인 교육방식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대중교육의 효과가 NPR의 주요한 평화교육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은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여론을 집적하고 평화에 대한 대중의견의 사회적 소통을 매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른바 논평과 여론장치를 라디오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중적인 인식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PR의 평화교육은 간접적인

것이 주를 이루지만 정보와 숙의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반하는 교육양식이며, 문화중심적인 접근방식(cultural access)보다는 사실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방송이외의 방식으로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한 평화 및 전쟁교육도 NPR이 수행하는 부가적인 교육방식중의 하나이다. 주로 청소년과 젊은층을 겨냥한 CD제작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에 대한 전쟁 및 평화 교육을 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아직까지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멀티미디어 시장의 발전에 조응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나 반복적, 교육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언론의 전쟁 및 평화 다루기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한 공영 라디오 NPR의 대중 교육의 정당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언론보도 중심의 교육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뉴스 중심의 NPR의 전쟁 및 평화 관련 보도들의 진실성 논쟁이 이러한 NPR의 교육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를 통한 간접교육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면, 의사소통에 근거한 숙의적 교육양식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중에 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면 매스미디어의 교육적 효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 중심의 교육이 갖는 위험수준을 인식하고 지속적이면서 상시적인 교육내용들을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채널로 구성하여 확산하는 내용이 앞으로 NPR이 추구해야 하는 변화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과 보도 및 뉴스와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교육적

기능에 있어서는 단순히 간접적인 방식만을 추구함에 있어 제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은 물론 단순 보도를 초월하는 교육 방식이 평화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NPR 사례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한국 매스미디어의 통일 및 평화교육

### 1. 한국 매스미디어의 평화적 기능

1987년 민주화 운동이래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참여자(actor)들이 출연하고 이해관계를 정치과정에 투입(input)하는 정치적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확장되는 과정이 구축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의 한국은 세계화, 정보화의 거대 어젠다와 직면하여 많은 사회단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고, 평화관련 이슈역시 이러한 운동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반전평화운동, 반핵운동, 인권, 여성, 환경, 대량살상무기, 정보화 분야에서 평화문제에 대한 운동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평화 및 사회관련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운동의 일환으로, 평화문제를 확산함에 있어 언론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리프만이 주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12) 김승채, 이학근, 『평화와 평화상』 (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은 언론을 통해 습득되어진 것이며, 그런 만큼 언론이 평화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는 사회적 인식체계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13)</sup> 냉전이라는 개념 구성과 사회적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언론이며, 변화된 평화체계의 사회적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매스미디어가 평화와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전파하는가는 사회적 인식변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미국중심적'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역시 제기되어왔다. 미국 주요 언론이 견지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지배적 입장을 우리 언론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의 평화관점과 대테러 관점들을 국내적으로 확산시켜왔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지면과 방송 프로그램을 할애하여 미국의 보복과 전쟁준비 상황 등을 보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지적도 도출된 바 있는 것이다.<sup>14)</sup>

우리 언론의 의제설정을 위한 올바른 기능과 대국민적 교육효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다양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언론의 이슈선

13) Lippman, *op. cit.* (1992).

14)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남북한테러반대 의제선정 환영'이라는 논문을 내고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민언련측은 중요한 평화의 문제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이 아니라 언론의 통일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을 복원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초점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매체 비평 하나리포터 (2004), <http://www.hanireporter.hani.co.kr> (검색일: 2005.11.29).

정과 이에 대한 입장전달 방식 및 내용의 변화가 강력히 촉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시민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교육 효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민주적으로 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언론 역시 평화교육적 차원에서 타 사회참여자들로 인해 교육되고 계도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수동적인 언론의 교육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정의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언론을 견제함과 동시에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언론의 평화와 관련된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피교육자로서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인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교육내용을 피교육자가 원하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 역시 평화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좁게는 언론의 평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요자의 요구(needs)를 파악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며, 넓게는 민주적인 언론의 자기 성찰과 재구성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의 언론은 평화나 전쟁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편파적인 주제 선정을 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교육적인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 의제들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언론들은 단순한 보도에 의존해서 대국민 평화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케이블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이 기존 방송 및 신문을 대체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점차 가속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론방송, 케이블

방송과 같은 제3의 매체들을 통한 평화 및 전쟁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방송만으로는 평화교육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전달 매체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2가지 핵심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기존 언론들이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대상 역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평화교육을 시민집단별로 어떻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과 같은 신매체 세대에 대한 평화교육과 정보전달 방식이 집중적으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EBS의 평화교육의 특성과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매스미디어의 평화교육은 교육센터를 통한 직접교육과 언론방송을 통한 간접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다. 후자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평화와 전쟁관련 보도를 통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대상 집단을 전제로 한 방송이외의 간접적인 평화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교육방송(EBS)의 청소년 평화 및 전쟁,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진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1990년 12월 개국된 교육방송이며, 전국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다. 위성교육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해 초등 및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EBS의 평화교육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동영상 매체를 통한 평화 및 국제이해 교육 내

용을 청소년들에게 전달 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EBS의 방송을 통한 평화, 통일, 전쟁교육은 크게 다큐멘터리, 월드 리포트, 그리고 열린 다큐, 생방송 토론 카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다큐멘터리는 여성, 과학, 환경 등 사회, 시사적인 주제들과 더불어 통일과 전쟁 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테러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일반 언론보도에서 다루는 선정적인 테러공격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청소년들의 전쟁 및 위기 발발 요인, 문화적 충돌의 보다 근본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평화의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이들이 활용하는 병기와 무기, 그리고 살상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내용보다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현실적인 평화환경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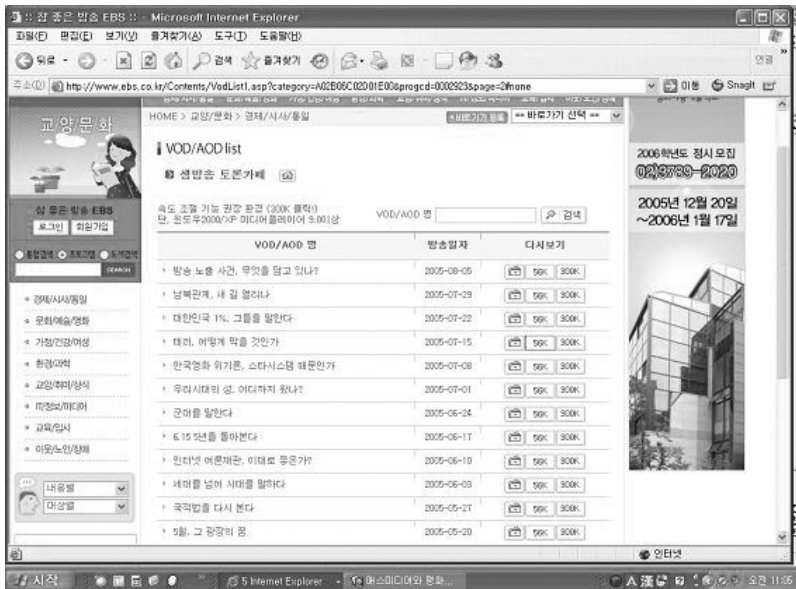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문제는 특집 다큐멘터리 형태로 남북한의 문화적 이해, 타협과 평화공존의 문화적 접근양식을 주요한 교육컨텐츠로 취하고 있다. 교육방송인 만큼 EBS는 기존의 주요 언론보도와는 달리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내용의 평화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BS의 평화교육에 있어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여론 집적 및 의견의 상호교환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인식교육으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학생집단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숙의적 메커니즘을 방송보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학습과정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른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카페’가 그것



인데, 본 토론카페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특정한 사안을 놓고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다. “테러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군대를 말한다”, “전환기의 한미동맹” 등의 전쟁과 평화 관련 주제들을 정기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숙의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EBS 생방송 토론카페



청소년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주입에 의한 전쟁 및 평화교육에 주력하기 보다 EBS는 토론과정에서 습득되어지는 학생들의 교육경험을 중요한 교육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전쟁과 테러, 평화의 문제들에 대한 숙고

의 기회를 EBS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언론보도의 일방적 관점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공영방송 시스템을 통해 전쟁과 평화에 대한 불특정 공중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로 숨겨진 어젠다를 찾아 해석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국은 교육공영방송을 통해 특정한 학생 및 청소년 집단들에 대한 이해와 교환의 교육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전자가 커멘터리(commentary)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집단적 소통(group-communicative)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교육방송의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및 평화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교육적 확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EBS가 제공하는 전쟁 및 평화교육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화(socialization) 기능을 통해 문화를 전수하고 이해시키는 교육적인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된다.<sup>15)</sup> 특히 사회화 기능으로 교육적 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문화적 창의성과 독창성을 사회구성원들에게 확보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제공하는 역할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EBS의 청소년에 대한 전쟁 및 평화교육은 평화의 문제를 문화의 문제로,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소통의 주제로 하여 사회화하는 매스미디어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15) 김정탁,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http://www.smilejt.net> (검색일: 2005. 11. 30).

볼 수 있다. 특히 연령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전쟁 및 평화교육을 매체를 통해 토론과정으로 유도함으로써 이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사회화 과정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내용의 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 제도 교육기관(학교)에서는 효과적으로 다루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공백을 EBS가 대신함으로써 언론의 학습효과 및 사회 통합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EBS의 전쟁 및 평화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보위주의 평면적 교육내용의 문제이다. 물론 EBS의 교육은 다른 주요 언론보도와는 달리 토론과 다큐멘터리를 통한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를 중요한 콘텐츠로 하고 있다. 이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 문화적인 접근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EBS가 여전히 평면적인 내용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생활환경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방문과 체험내용이 주가 되는 방송 콘텐츠가 개발되어, 학생들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두번째 문제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구성과정에서 교육 대상자(학생, 교사)의 제작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들이 요구하는 전쟁과 평화의 핵심 문제들이 방송 이슈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열려진 제작 프로세스(process)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전쟁과 평화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었는가에 대한 인식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수동적인 참여방식보다는 교육대상자들이 방송 콘텐츠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invovment)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창의성과 독창성을 자극하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EBS의 경우 지역적인 평화와 전쟁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인 접근 양식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문화를 해석하고 투영하는데 있어 여전히 방송사 스스로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이 교육 대상자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 어

이상에서 필자는 전쟁 및 평화교육에 있어 매스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조망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NPR과 EBS의 전쟁 및 평화교육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왔다. 매스미디어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위치를 뛰어넘어 사회구성원을 교육적으로 사회화하는 적극적인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강화하는 수동적인 기제로서의 역할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중요한 문제들을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사회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교육

적인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소스 역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입장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제3의 역할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자들이 왜곡된 사실과 입장을 전달한다면 언론의 교육적 효과는 오히려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기계적인 역할밖에는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평화교육의 순기능은 단지 언론 자체의 노력과 의지에만 의존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이 교육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견제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의 콘텐츠 발굴 및 제작과정 일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언론의 교육적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언론에 대한 사실 정보공급, 현실적인 지식 전달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스 미디어가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뉴스원의 역할을 시민단체들이 수행할 수 있어야 이러한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매체의 발달이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구매체에만 의존하여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종류와 정의를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평화교육의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평화교육의 다양한 전달방식을 개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채, 이학근, 『평화와 평화상』 (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 김정탁,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http://www.smilejt.net> (검색일: 2005.11.30).
-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미국의 신보수주의: 문화의 정치와 뉴스 대중주의,” 『지역연구』, 제2권 1호 (1993).
- 오기성 외, “통일교육 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3).
- 유세경, 『매스미디어와 현대정치』 (서울: 나남출판사, 1996).
- 조동원,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 『세계화와 민중』, 40호 (2004).
- “청문회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The New York Times* (1991.10.31).
- 한만길 외, “각급 학교와 사회 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 홍민식,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평화』, 창간호 (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 Fishman, M.,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0).
- Lippman, Walter, *Public Opinion* (NewYork: Free Press, 1922).
- Iyengar, Shanto and Kinder, Donald,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http://www.npr.org>.
- <http://www.ebs.co.kr>.
- <http://www.abunimah.org>.
- <http://www.smilejt.net>.
- <http://www.spp.or.kr>.

| **Abstract** |

**Mass-media and Peace Education: Focusing U.S. NPR &  
Korean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Chung, Youn-chung** (Paichai University)

This article discusses positive roles of mass-media for peace education to the public and focuses understanding on contents and features of war and peace education of radio and cable TV in U.S. and Korea. Generally, mass-media tends to disseminate information regarding peace and war to the public, and mediates various social-political issues to be solved to government intervention. In particular, it generates socially important policy agenda through gate-keeping process and forms and articulates public opinion on social matters. Defining as socialization, media contributes to form recognition and formation of culture by producing broadcasting contents on peace and war. Regarding the peace and war issue, mass-media continuously educates and promotes public understanding, and it takes an important role to construct infrastructure national public conception on the peace and war.

In case of U.S. NPR(hereafter National Public Radio), it has taken crucial role to reveal closed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Iraq war in which U.S. army involves and processes the results. NPR has been more likely to attune to develop and disseminate issues which the major broadcastings seemed to neglect on purpose. Additionally NPR takes an role for monitoring real situation of U.S. army intervention into various international wars. Regarding Korean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EBS) peace and war education, it

has educated the young through peace and war programs. EBS has been more focused on discussion programs for the education and affected on the young's understanding on war and peace in general. The discussion programs are consistent with channels for communication among the young and it helps them to enlarge mutual understanding on others' perception on war and peace issues. Thus, peace education of mass-media will develop by constructing more factuality and situational learning process to the public.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for the media not to be manipulate in dealing with the fact on peace and war, and social monitoring is inevitable to keep the media from the manipulation.